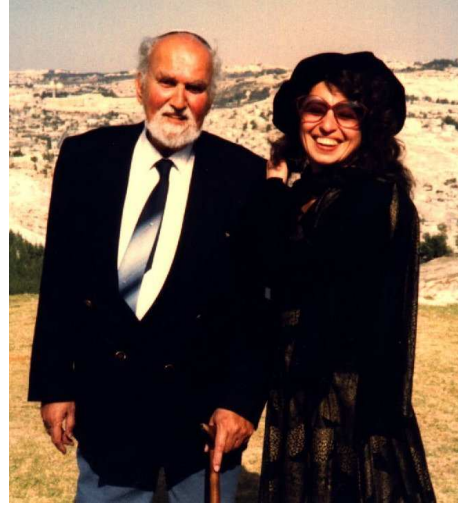


## 2. 이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하는 데에 어떤 종류의 방해나 간섭이 있었나?

이스라엘에 소련 교도소, 정신병자 수용소와 강제 노동 수용소 캠프에 대한 연구 센터를 설립한, 소련 출신 이민자, 아브라함 쉬프린이 KAL 007기의 격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1991년 그는 KAL 007기와 그 승객들의 생존, 그리고 소련 측의 뒤따른 은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계획했었다. 기자회견 전날, 연구 센터 사무실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된 다양한 대중 매체 대변인들에게 연락하여 기자회견이 취소되었다고 전달했다. 쉬프린은 연락을 취했던 기자들이 아무도 오지 않자 완전히 놀라게 된다.



이 작업에 대한 가장 큰 반대는 1990년대 중반에 있었다.

이 센터가 알아낸 사실을 한국 대중 매체가 검토하고 발표하는 것을 방해한 시도는 부분적으로, 어찌 보면, 완전히 성공적이었다. 쉬프린과 나 자신과의 세 번에 걸친 인터뷰는 한국 매체—기자, 잡지, 프라임 타임TV에 발표하려는 목적 하에 이스라엘에서 진행되었다. 이 중 두 번을 방영한 후 한국 C.I.A.는 그 TV 시리즈 물을 막아 버렸고 모든 신문이 연구 센터가 알아낸 사실을 담는 것을 방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1996년 1월 한국어 잡지, Win에 우리가 발견한 것을 발행하는 데에는 방해에 실패했다. 21 페이지 분량의 요약된 C.I.A. 보고서 (<http://www.rescue007.org/docs/CIAReport.pdf>) 가 1996년 2월 판에 등장했다. 그러나 그 잡지는 나머지 7번의 시리즈 분량 출판을 금지당했다.

발행 후 곧, 해외 주재 한인 사회에서 한국 C.I.A 대리인으로 간주되는 텔아비브 주재 한국 대사관 대표가 나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그는 나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고 나는 거기에 응했다. 우리 대화는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다. 인터뷰 전반부 동안 그는 승객 구출에 대한 나의 확신을 포기도록 설득하려 했다. 나머지 시간 동안 그는 나의 과거에 대해 캐내려 했으며, 한국 대중 매체와의 연락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사건 이후 이 9년 동안 한국 정부가 KAL 007기에 보인 관심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그에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 얼마 후 한국 대중 매체 - TV 팀—과의 마지막 연락이 막혀 서울에서 텔아비브로 오려던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었다.

그 외에도 다른 잘못된 정보, 숨겨진 위협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방해/간섭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방해 공작들은 정확히 밝히거나 집어내기가 힘들기에 여기서는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이 모든 반대 활동들은 이 사건을 덮어 두고자 하는 정부 조직들이 있다는 나의 확신을 강하게 해 줄 뿐이었다.